

44 올바른 선택을 한 룯

Chapter

룯 1~4장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 57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배울



말씀

1.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함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을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주일인 오늘, 영희는 교회에 가려고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까 고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옷들은 있지만 막상 입으려고 하니 저번에 배웠던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예쁘고 마음에 드는 옷들은 전부 너무 짧거나 속이 비치어 남의 시선을 끄는 옷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런 옷들은 주님께 돌려야 할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분반 친구들과뿐만 아니라 선배 자매님들, 심지어 어머니 자매님들까지도 종종 이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괜챿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영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골짜기에 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를 희망의 봉우리에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룯기는 룯이라는 여인의 굳건한 믿음의 선택과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께 보답을 받아, 비극에 처한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룯기의 서두에는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 닥친 불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치자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사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은 했지만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방 며느리 둘만 남게 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를 자유롭게 해 줄 마음으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좋다며 떠났지만 둘째 며느리 룯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룯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땅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룯의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보상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룯 1:16)

But Ruth said : “Entreat me not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following after you: For wherever you go, I will go ; And wherever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Ru 1:16)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룻 1:1~5)

(룻 2:8~16)

(룻 4:13~17)

2.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족이 잃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 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학교 친구들과 함께 급식하는 시간에
나는 식사기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 친구 생일파티 때에 모두 노래방에 가는데
나는 같이 갈 것인가? 돌아설 것인가?
- 주일 아침에 반 친구들은 모두 공부하러 가는데
나는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2. 룻기는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인한 결혼과 새 생명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또한 로마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되지만 말씀에 비추어 반드시 따라야만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선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가까이 있는 고통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 곁엔 늘 나무와 못과 망치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것들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들 역시 나무와 못과 망치였습니다. 심판의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 어찌면 굶은 못으로 자신의 손을 꾸욱 눌러보진 않으셨을까...



내가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 그것들은 때로 내게 큰 고통이 되어 나를 누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때론 공부가...
때론 학교 생활이...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힘들지만 감사함과 기쁨으로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볼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시 54:4)

제일 중요한 일의 선택

다음은 일본의 기독교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글 중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가로막는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두 번째 좋은 것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손님이 왔으므로’라든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라고 흔히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단 교회에 빠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첫째의 것을 엄두에 두고 택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선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사회 생활에 중요한 일을 앞세웁니다. 그로 인하여 참으로 중요한 제일의 것은 엄두에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